

## PB-01

**내탈립 단기성 · 유색콩 유망계통 선발**서정현<sup>1\*</sup>, 강범규<sup>1</sup>, 김현태<sup>1</sup>, 오재현<sup>1</sup>, 신상욱<sup>1</sup>, 김홍식<sup>1</sup>, 백인열<sup>1</sup><sup>1</sup>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서론]**

콩의 탈립성은 수확기 심각한 수량손실의 주원인이며, 기계수확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된 ‘대원콩’은 성숙기 탈립에 매우 강한 특성을 나타내어 우리나라 보급종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우량품종으로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육종 프로그램에서는 ‘대원콩’ 수준의 내탈립성을 가지면서 내재해성과 고품질인 특성을 갖는 콩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숙기가 빠른 단기성콩, 재래종 검정콩 등은 특히 탈립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원콩’을 모본으로 한 집단에서 ‘대원콩’ 수준의 내탈립성을 가지면서도 개화기 및 성숙기가 빠른 단기성콩과 유색콩 계통을 선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내탈립성 품종인 ‘대원콩’을 모본으로 하고, 감수성인 검정콩 품종 ‘다원콩’, 단기성 품종 ‘새울콩’을 부분으로 하는 두 집단으로부터 파생된 F<sub>8</sub> 계통 중 ‘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실내 내탈립성 검정에서 72시간 후 터진 협의 개수가 ‘0’인 저항성 계통을 선발하여 ‘18년에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모·부분 및 계통에서 5개 개체의 생육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개화기, 성숙기, 경장, 마디수, 분지수, 협수 생육특성과 생육전반의 포장생육을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내탈립성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8년도에 실내 내탈립성 검정을 추가수행하였다. 유망 계통은 각 집단에서 3년간 저항성을 나타낸 계통을 선발한 후 개화기, 종피색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결과 및 고찰]**

2년간의 실내 내탈립성 검정 결과 건조기에서 72시간 후 개열한 협의 개수가 ‘0’인 저항성 계통은 ‘대원콩’×‘다원콩’ 집단에서 41계통, ‘대원콩’×‘새울’ 집단에서 30계통이었으며, ‘18년도까지 3년간 탈립에 저항성을 나타낸 계통은 총 49계통이었다. 이 중에서 개화기 및 성숙기가 새울콩에 준하여 빠른 단기성 계통과 종피색이 유색인 유색콩 계통을 각각 선발한 후 생육조사 결과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단기성 계통 3계통 및 유색콩 계통 3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6개의 계통은 모·부분 품종보다 경장이 크고 마디수, 협수가 많아 수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된 6개 계통은 생산력검정시험에 공시하여 우량계통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사업번호: PJ011868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82-55-350-1236, E-mail, next0501@korea.kr